

## 9 칼뱅의 신학형성과 인문주의 :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오형국 교수 / 숭실대학교, 서양사

### 들어가는 말

칼뱅은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신학자이며 동시에 가장 독특한 개신교 신학자로 간주될 수 있다.<sup>1)</sup> 이것은 그의 신학이 갖는 사상적 구조와 그가 성취한 과업에 있어서 공히 나타나는 점이다. 그의 신학은 ‘전적 타락’ 또는 ‘예정론’과 같이 지극히 비타협적인 신본주의의 교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중 신지식론’과 ‘일반은총론’에서와 같이 인간과 창조세계의 가치를 세속영역에서까지 발견하고자 하는 긍정적 개방성을 뚜렷이 지니고 있다. 또한 그의 신학은 1차적으로 영혼 구원의 신앙과 경건한 교회공동체를 성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1. 이러한 칼뱅의 특징은 Philip Aries가 “새로운 신학적 입장은 오직 그 시대의 일반감각과 약간 다를 뿐 아니라 또한 대단히 밀접한 경우에만 수립될 수 있다.”고 언명한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Philip Aries, *The Hour of Death*, tr. Helen Weaver(New York, 1981), p. xvii, quoted in William Bouwsma, *John Calvin : A Sixteenth Century Portrait*(Oxford, 1988), p. 19, n. 22.

것이지만 당대뿐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에서도 다양한 사회사상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 본고는 그 주요한 원인을 칼뱅이 자신의 신본주의적 경건과 신학적 개념들을 동시대의 학문 및 문화요소와 깊이 결부시킬 수 있었다는 데서 찾고자 하였다. 특히 당대의 가장 중요한 지적 운동이며 새로운 문화창출의 동인이었던 인문주의 사조가 그의 신학사상의 형성에 기여한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연구사 및 방법론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신학과 교회의 영역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학문과 사회 영역 전반에 관계된 운동이었다. 칼뱅은 종교개혁의 이러한 양상을 가장 뚜렷이 반영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의 사상이 갖는 종교적 역동성과 문화형성력의 원천을 탐구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역사적 접근보다는 주로 신학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칼뱅 연구의 방대한 성과들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학제적인 연구, 특히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의 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sup>2)</sup> 이와 관련하여 William Bouwsma의 견해는 칼뱅뿐 아니라 종교적 주제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방법과 의미에 관하여 경청할 만하다.<sup>3)</sup> 그에 따르면, 이제까지 칼뱅은 역사가들의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일반 역사가들은 그를 시대의 아들, 즉 역사적 인물로 묘사하는 데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그를 신학자들 또는 칼뱅 전문가들에게 남겨 두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우선 역사가들이 학문, 예술, 종교 등 문화사 영역의 주요 인물과 씨름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지적, 예술적, 종교적 비범성은 역사적 과정과 분리된 별

2. Gamble, "Current Trends in Calvin Research, 1982-1990", ed., Wilhelm Neuser,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Eerdman, 1990), p. 109.

3.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Oxford, 1988), p. 22.

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학 연구자들 역시 위대한 신학자란 마치 계시의 대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곤 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 시대의 역사적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국면에 대하여는 통찰을 기울이지 않았다. 칼뱅의 경우에서도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 개인적인 경건의 체험과 신학적 확신에 의한 것으로만 파악되었을 뿐, 자신의 신학을 구성하는데 채택한 개념과 언어의 특성에 대한 당시의 르네상스 학문 및 시대정신과의 상관성은 간과되었다. 그러나 종교나 예술, 학문상의 비범성은 역사적 과정을 초월한 영감과 천재성의 소산으로만 간주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범한 이들은 평범한 이들보다 역사적 상황의 특성을 더욱 민감하게 인지하고 반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칼뱅에게서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는 점이다.<sup>4)</sup>

본고는 종교개혁자 칼뱅이 자신의 신학을 형성하고, 목회와 교회정치 그리고 교회 및 학교의 교육사역을 통하여 실천하는 과정 속에 르네상스 문화의 주된 맥락인 인문주의의 학문과 정신자세가 어떤 양상으로 반영되고 결부되어 있는가를 16세기 전반기의 문화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sup>5)</sup>

4. William Bouwsma, "Calvinism as Renaissance Artifact" ed.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Church: A Prism of Reform*(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p. 29. 칼뱅의 신학사상에 관한 역사적 접근의 연구로서는 Quirinus Breen, *John Calvin: A Study in French Humanism*(Archon Books, 1931/1968) A. Ganoczy, *Le jeune Calvin* (1966), tr. David Foxgrover, Wade Provo, *The Young Calvin*(Westminster Press, 1987); Susan Selinger, *Calvin against Calvin: An Inquiry of Intellectual History*(Archon, 1984); William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Oxford, 1988) 등이 있다.

5. 본 고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즘을 인문주의로 지칭하기로 한다. 휴머니즘의 개념을 논하는 모든 연구자는 그 개념의 다의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한다. 휴머니즘의 역사를 선택할 때에는 그것의 종교적 함의와 학문적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을 인문주의로 지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휴머니즘의 본래의 의미가 고대의 '파이데이아'(인문학

## 1. 서론 : 르네상스 문화와 종교개혁

### 1) 두 시대의 접속점 위에 서 있는 칼뱅

칼뱅의 사상과 인문주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상관성이라는 주제를 마땅히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16세기 초의 유럽은 교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신구교로 양분된 종교개혁의 격동기에 접어들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 전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칼뱅(1509-1564)이 종교개혁자로서 활동한 시기는 「기독교강요」의 초판이 나온 153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신학사적으로 종교개혁의 제2세대에 해당한다. 독일 지역에서 루터파를 중심으로 신교 진영의 정치적 입지가 확보되어 가고 있었지만, 개신교 사상은 아직 신학적 체계와 교육적 프로그램으로서 동시대인들의 삶과 문화 속에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한편, 그는 문화사적으로는 르네상스에 속한 인물이었다. 에라스무스(D. Erasmus), 뷔데(G. Bude), 르페브르(Lefevre D'etaples), 모(Maux) 그룹 등의 종교적 인문주의자들과 왕립 인문학 강좌로 대변되는 프랑스 인문주의의 전성기에 고전학과 법학으로써 당대의 최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의 처녀작을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으로 하여 자비출판까지 한 전형적인 인문학자였다. 이러한 점에서 칼뱅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두 요소를 온몸으로 반영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칼뱅의 사상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시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적 교양에 의한 인성의 함양)의 부활이라고 볼 때,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이것에 충실한 정신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탈종교 또는 반종교적 경향이 주된 본질이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함의를 띠고 있는 '인본주의'보다 인문주의라는 역어가 적절하다고 본다. cf. 김영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본질과 특성」, 김영한 편, 「서양의 인문주의 전통과 그 변천」(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 p. 33.

### 2)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계에 내포된 물음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연결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지적 고리를 인문주의라고 볼 때, 인문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는 전적으로 이질적인 것이었는가, 아니면 양자 사이에는 전 유럽적인 통일성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1차적으로 문화적 차원의 운동이었던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이라는 광범위한 종교적 변혁운동과 갖는 인과적 연관성은 단순히 성서의 원전과 교부저작의 복원이라는 문헌학적 기여에 국한된 것이었는가, 아니면 개혁자들의 신학함(doing theology)의 정신과 방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는가 등이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 문화의 심층에 흐르고 있던 여러 경향성들과 그것들의 종교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르네상스 문화 속의 종교적 동인과 한계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 근거한 학문과 예술의 발달을 특징으로 하며, 형이상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세의 제도종교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을 강하게 띠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몽사상시대 이래로 르네상스는 중세로부터의 단절과 세속성의 발현이라는 관점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종교성, 구체적으로 르네상스 문화의 주역들인 인문주의자들의 종교성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쉽게 부정적인 평가로 단순화할 수 없는 측면들이 대단히 많이 발견된다.<sup>6)</sup>

유럽의 르네상스는 변화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주론적 형이상학의 사변과 보편체계의 위계적 질서를 거부하고, 현실에 부응하는 실재적

6. E. Cassirer, *The Renaissance Philosophy of Man*(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 23. 진원숙,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기독교」, 「대구사학」 38집(1989), p. 290 재인용.

이고 구체적인 인간관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국면에서 교황제의 통일적인 위계제도 하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신앙개념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기서 르네상스의 세속주의적 성향과 함께 종교적인 국면을 아우르면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중세적인 종교관, 즉 중세 카톨릭시즘으로 표현된 기독교의 세계관을 탈피하고자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전적인 반종교 내지 탈종교화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르네상스인들이 중세적 종교, 즉 당시의 카톨릭시즘을 부정할 때에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망과 추구의 도전이 함의되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기독교 신앙을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재정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이탈리아나 북방 유럽 구별없이 전 유럽에 걸쳐 광범위하게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만, 인문주의자들로서 대변되는 르네상스의 종교성은 실제 현실에서 종교적 변혁을 이루는 동인으로 작용할 만큼 신학적 대안을 천착하거나 교권의 벽을 뚫을 만한 영적 강인함을 갖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였다.<sup>7)</sup>

## 2. 인문주의 조류 속의 칼뱅

### 1) 인문주의의 개념과 성격

#### (1) 인문주의의 사회적 상황

인문주의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그리스, 로마의 고전과 고대 기독교 교부들의 원전으로 돌아가서(ad fontes) 새로운 인간상을 발견하고 세계

7. Bouwsma, "Renaissance and Reformation: An Essay on Their Affinities and Connections", *A Usable Past*(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 227.

를 이해하며 표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고방식을 수립하고자 하는 학문운동이며 교육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운동의 사회적 양상은 한편으로는 에라스무스나 뷔데 등의 학자들과, 베니스의 알도 마누지오(Aldo Manuzio), 바젤의 요하네스 프로벤(Johannes Froben) 등과 같은 출판업자, 교황 레오 10세, 프랑스의 국왕 프랑수와 1세 같은 후원자들이 관여하는 높은 수준의 학문세계를 가리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10대 소년들이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골몰하고 있는 영국의 문법학교나 예수회 대학들, 개신교 교육기관의 단조로운 세계를 가리킨다. 인문주의는 고전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공유하는 지적 문화였고, 한편으로는 교리적 차이로 분열된 유럽의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학 교수나 작가로 입신하였고, 그 중 더 유능하거나 연줄이 있는 사람은 교회나 국가의 주요 공직을 차지하였다. 나머지는 법률가, 일반 성직자, 비서, 관리, 교사 등이 되었고, 도시 원로의 자제나 향사, 소귀족, 상인, 자영농의 자제들은 지적 훈련을 접고 영지관리나 상업에 종사하였다.<sup>8)</sup>

#### (2) 인문주의의 수사학 정신과 스콜라주의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기존의 정신적 흐름인 스콜라주의와 비교함으로써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서양의 지적 전통을 논리학 중심의 철학적 학풍과 수사학 중심의 학풍이 서로 대립 경쟁한 과정이라고 할 때, 스콜라주의가 철학적 전통을 대변한다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그리스의 소피스트, 로마의 키케로, 중세의 문서작성자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수사학 전통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sup>9)</sup> 수사학(rhetoric)이라는 용어는 변증학(dialectic)과 마찬가지로

8. Richard Rex, "Humanism" A. Petegree ed. *The Reformation World*(Routledge, 2000), p. 51.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곤 하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sup>10)</sup> 수사학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오늘날의 용례에서 '수사적'이라는 말 속에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상의 기교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에게서 진정한 의미의 수사학은 지혜와 문체의 조화로운 통일을 뜻하는 것으로서, 고대의 공적 생활에서 증시된 논쟁과 설득의 기능, 즉 재판의 배심이나 정치집회에서 정의를 분별하고 현명한 국사의 처리를 위하여 구사할 태도와 기술에 관한 학문(discipline)이었다. 이것은 논리학이나 철학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실적 완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종래에는 스킨라주의가 중세의 종교적 이념을 대표하는 반면 인문주의는 '인본주의'(人本主義)라는 번역어가 함의하듯이 종교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인간중심의 세속주의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서 인문주의는 '중세의 종교'를 부정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중세의 학문, 즉 스킨라주의의 지적 패러다임을 극복하려는 신학문사조였다. 그 내용은 언어와 수사학에 중심을 둔다. 스킨라주의가 진리를 논리에 의존하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체계로 조직하는 것을 목적하였다면, 인문주의자들은 수사학과 설득 기술에 관심을 두었고 영감을 구할 대상을 고대의 철학자들보다 웅변가, 시인, 역사가들에서 찾았다. 그들은 이성에 의한 논리적 확신보다 감성과 의지를 움직이는 설득을 중시하였다. 그것은 인간 존재를 보는 관점에서 정념적(passion)이고 활동적이며 사회적인 면이 지적인 존재보다 앞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11)</sup> 여기서 인문주의자들은 스킨라적인 형이상학과 논리학을 거

부하고 언어에로 관심을 집중한다.<sup>12)</sup>

(3) 인문주의의 사상적 기능 : 철학적 신조(doctrine)인가 정신적 태도(mentality)인가?

크리스텔러가 지적하듯이 인문주의는 다층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여러 전통들과 상호 작용하는 지적 운동이었으며, 인문주의자들의 특징적인 성향은 이념들의 실제적 내용보다는 어떻게 이념들이 획득되고 표현되는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었다. 다양한 인문주의자들을 동질의 집단으로 묶어 주는 공통의 목표는 고전과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studia humanitatis)를 통하여 사회에 필요한 교양인을 양성한다는 것이었다.<sup>13)</sup> 이러한 관심은 내세와 형이상학적 문제에서 벗어나 삶의 현실, 즉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향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하여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지식과 신조 자체보다는 그것을 얻기 위한 인식론 및 방법론적 학문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고 있었으며, 새로운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사고틀(mental set) 내지는 정신적 경향(mentality)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인문주의는 신학 자체보다는 종교에 관한 학문과 관행의 변화를 일으켰다. 인문주의는 언어연구, 문헌고증, 문학적 표현과 웅변의 설득술 등 수사학 전통에 기반을 둔 학문이며 사고방식이었으므로 그 영향은 교리보다는 정신적 태도, 관점, 사고방식(mentality) 차원의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인문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물론 암브로시우스, 크리스소스토무스 등 대부분의 라틴 교부들은 수사학자였으

9. 김영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본질과 특징", p. 25.

10. E. David Willis, "Rhetoric and Responsibility in Calvin's Theology" *The Context of Contemporary Theology: Essays in Honor of Paul Lehman*, ed. A. J. McKelway and E. David Willis(John Knox Press, 1974), p. 45.

11. Bouwsma, "Renaissance and Reformation", pp. 113-114.

12. *Ibid.*, p. 114, n. 1.

13. P. O. Kristeller, *Renaissance Thought: the Classics, Scholastics, Humanism* (New York, 1961), p. 11.

며, 이들 라틴 교부들로 인하여 수사학 전통은 르네상스 시대에 상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sup>14)</sup>

## 2) 16세기 프랑스 인문주의와 칼뱅

### (1) 초기의 인문주의자들

프랑스에서 초기의 인문주의 운동이 갖는 특징은 문학적인 흐름과 종교적인 흐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었다는 점이다. 16세기 초 프랑스에서 인문주의 운동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준 사람 중 첫 번째로 꼽아야 할 인물은 로렌조 발라(Lorenzo Valla)이다. 그는 15세기의 인물이지만 그의 저술을 통해 프랑스 인문주의자들은 중세의 오류를 수정한 순화된 라틴어를 배웠고, 엄밀한 본문비평의 정신을 알게 되었다.<sup>15)</sup> 그리고 발라의 업적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은 에라스무스이다. 그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방대한 지식과 상상력을 겸한 문장으로써 전 유럽에서 권위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젊은 인문주의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학문적 영향을 미친 인물은 그리스학과 로마법의 대가인 기욤 뷔데(G. Bude)였다. 종교적 학문의 영역에서 프랑스 인문주의 운동에 가장 기여한 사람은 자끄 르페브르 데타플(Jacque Lefevre d'Étaple)이다. 그는 루터와 같은 신학사상을 그보다 6년이나 먼저 파리에서 가르쳤다.<sup>16)</sup> 그러나 이들은 당시의 종교를 비판하고 학문적으로 바른 신학을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로마 가톨릭과의 충돌 속에 들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다. 칼뱅 역시 박해 이전에는 프랑스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러나 1534년에 박해가 본격화되면서 르네상스의 조류 속에 뒤섞여 있던 종교개혁의 정신은 르네상스로부

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으며, 칼뱅과 초기의 인문주의자들은 확연히 분리된다. 칼뱅은 자신의 신앙고백과 신학적 신념을 감추는 태도는 용서 또는 양해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니고데모주의자로 정죄하였다.<sup>17)</sup>

### (2) 인문주의 문화 속의 칼뱅 : 교육배경과 회심

칼뱅(Jean Calvin 또는 Jean Cauvin, 1509-1564)의 출생지는 프랑스 피카르디 지방의 노아용(Noyon)이다. 그의 부친은 장인 계층 출신의 참사회원이었으므로 그는 주교의 자녀들과 함께 교육의 혜택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다. 칼뱅은 14세 때인 1523년 파리에 와서 마르쉬 학교(College de Marche)에서 그 시대의 저명한 인문주의 교육자의 한 사람인 마튀랭 꼬르디에(Mathurin Cordier)를 만나 라틴어 문장의 기초를 닦으며 언어에 대한 감각과 인문주의 학문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그가 대학교육을 처음 받은 곳은 몽페귀 대학이었다. 이 대학은 정통주의의 요새 중 하나로 간주되었고, 엄격한 수도원적인 기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 정통한 스코틀랜드인 신학자인 메이저가 있었고 '공동생활의 형제단'(Brethren of Common Life)에서 시작되었던 신경건운동(Devotio moderna)의 흐름을 접할 수 있었으므로 칼뱅은 전통적 스콜라학문의 훈련과 인문주의 학문의 정신과 방법을 경험할 수 있었다. 1528년 몽페귀에서 문학석사(Master of Art)를 마치고 칼뱅은 부친의 명을 따라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된다. 당시의 법학은 프랑스 왕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문으로서 고전문학의 연구와 함께 프랑스 르네상스 학문의 주류였다.<sup>18)</sup> 오를레앙에

14. Bouwsma, *John Calvin*, p. 113.

15. Breen, *John Calvin*, pp. 103-104.

16. *Ibid.*

17. 파렐은 르페브르가 말년에 임종을 앞두고 큰 죄책감을 고백한 것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Duby, p. 387. cf. 강경림, 「칼빈과 니고데모주의」(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 37.

18. 프랑스 인문주의자들은 로마법을 프랑스 왕정의 절대주의적 요구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었다. Breen, p. ix.

는 그리스어의 탁월한 교사인 독일인 멜키오르 볼마르(Melchior Volmar) 교수가 있었고, 그에게 법학을 가르친 교수들은 르네상스의 혁신적인 법학자들이었다. 따라서 법학 수업은 칼뱅에게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인문주의적 신학의 방법과 형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sup>19)</sup> 이탈리아인 법학자 알키아티의 명성을 따라 부르주(Bourges) 대학으로 옮긴 후, 1531년 봄에 법률가 자격증(licencie es lois)을 받는다. 이 해에 그의 후견인이었던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칼뱅은 파리의 왕립강좌(Lecteurs Royaux, 후에 College de France로 발전함.)의 수강생으로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한다. 여기서 르페브르의 영향을 받은 피에르 다네(Pierre Danés)와 프랑수아 바타블(Francois Vatable)에게서 배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을 저술하여 1532년 4월에 출간한다. 이 책은 칼뱅이 젊은 날 수련한 인문주의 학문의 성과를 집대성한 노작으로서 로렌조 발라와 에라스무스, 뷔데의 방법론이 충실히 구사되었을 뿐 아니라 저자 자신의 개성과 독창성도 나타난 작품이었다.

칼뱅을 그의 후기 생애인 제네바의 개혁자로만 알고 접근하는 사람은 그의 첫 번째 저작이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 저작의 주석이라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1520, 1530년대의 프랑스 인문주의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문주의 학문을 위하여 개설된 왕립강좌의 수강생인 젊고 뛰어난 학도가 고전의 주석을 저술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칼뱅은 자신의 학업을 종결하는 단계에 이 책을 출간함으로써 법률가보다는 인문주의 학자 또는 문필가로서 입신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었다.<sup>20)</sup> 1532년 4월 칼뱅이 친구인 다니엘에게 보낸 서신은 그가 이 책을

19. E. David Willis, "Rhetoric and Responsibility in Calvin's Theology", *The Context of Contemporary Theology: Essays in Honor of Paul Lehman* (John Knox Press, 1974), p. 48.

20. 이양호, p. 18.

자비로 출판하였으며 이 책의 판매와 반응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사실들은 칼뱅이 프랑스 인문주의 문화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sup>21)</sup>

우리는 세네카 주석을 통하여 칼뱅의 인문주의 훈련이 결코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문주의적 교육에 의하여 형성된 정신적 특질이 회심 후에 소멸되었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그의 신학형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가? 이에 관해서는 Breen이 지적하듯이, 일반적으로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고전적 저작을 26세(1535년 탈고)의 나이에 저술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일찍이 개신교 신앙의 정수를 깨닫고 사상화한 천재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곤 하지만 오히려 개인의 정신형성의 단계에서 볼 때에 칼뱅은 늦은 단계, 즉 인격과 정신적 특질이 이미 형성된 단계에서 회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회심이 회심자의 학문이나 숙달한 언어, 연구습관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칼뱅의 인문주의 학문훈련이 회심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칼뱅신학 속의 인문주의

16세기 프랑스 인문주의의 특징적인 요소와 성향들이 칼뱅의 신학사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칼뱅신학의 내적 구조를 드러내 줄 뿐 아니라 신학이 동시대의 지적 문화와 상호작용 또는 결합하는 '양식'을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칼뱅신학 전체를 규정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리고 인문주의의 수사학 전통과 관련하여 칼뱅의 언어와 '신학함'(doing

21. Epistola 14, "Calvinus Danieli", *CO*, X/2. pp. 20-21 quoted in Breen, p. 126.

theology)의 방법과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인문주의의 학문과 정신을 신학적 규범 아래서 수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칼뱅의 신학적 구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칼뱅신학의 구조와 특성 : 중심교리인가 인식론적 원리인가?

칼뱅신학의 개별 주제들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있었으나 그의 신학 전체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연구는 난관을 거듭해 왔다. 20세기 초까지 다수의 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 주권사상(doctrine of divine sovereignty)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예정교리에서 찾으려 하였다.<sup>22)</sup> 그러나 예정론은 구원 섭리의 한 맥락을 조명하는 것이고, 또 예정교의가 칼뱅만의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예정론이 그의 신학의 전체성격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예정론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사상을 중심교리로 보는 견해는 그보다 다소 설득력이 있으나 이것 역시 신학체계를 위한 관점이나 원리라기보다는 경건의 태도이며 초월적인 목표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심교리 논의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그 외에도 기독교론, 성령론, 그리스도와의 연합, 말씀과 성령의 절대적 상관관계 등의 개념을 중심교리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sup>23)</sup> 이 주장들은 칼뱅의 저술 전체를 연구하면 개별적으로는 타당한 근거들을

22. 이 견해를 주장하는 신학자는 에른스트 트뢰치(Ernst Troeltsch)를 비롯하여 한스 베버(Hans Weber), 라인홀트 제베르크(Reinhold Seeberg), 오토 리츨(Otto Ritschl) 등 다수이다. John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p. 33; R. Gamble, "Calvin as Theologian and Exegete, Is There Anything New?" *Calvin Theological Journal* 23(1988), p. 186.

23.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 Harold Knight(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6), p. 246.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공통적으로 칼뱅의 저술 중 한 부분만을 채택하여 강조한 것으로서 부분으로써 전체를 환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4)</sup> 그 결과 칼뱅신학의 열쇠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중심 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되었다.

칼뱅신학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특정한 중심교리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칼뱅 연구자들의 관심은 신학의 내용보다 형식적 차원 또는 인식론적 구성원리에 쏠리게 되었다.<sup>25)</sup> 헤르만 바우케(H. Bauke)는 칼뱅이 한두 가지의 개념에서 사변적 신학을 인출하는 체계론자가 아니므로 칼뱅의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열쇠는 교리적인 면보다는 신학 형식에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형식이란 단지 외적인 꾸밈, 문체, 분류와 배열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학내용의 내적 전개와 조직을 이끌어 가는 사유방식과 매개개념들을 뜻한다.<sup>26)</sup> 근래에 들어서는 칼뱅의 인식론적 토대에 주목하여 「기독교 강요」의 서두에 제시된 「이중 신지식론」(duplex cognitio Dei)이 칼뱅신학의 '하나의 또는 유일한(either a or the controlling principle) 구성원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데 신학자들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sup>27)</sup> 이러한 학문적 동의가 점증하게 된 이유는 칼뱅신학의 성립 자체가 신학적 인식론의 전환, 즉 신앙을 중세의 신비주의 전통에서처럼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성서에 의한 '지식'으로 간주하는 데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4. R. C. Gamble, p. 106; Leith, 38ff. 그러나 중심교리가 부재하다는 것과 「기독교 강요」의 체계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Francis Higman, *Lire et Decouvrir : La Circulation des idee au temps de la Reforme*(Geneve, Librairie Droz S. A., 1998), pp. 391-392.

25. 여기에 속하는 연구자로서는 H. Bauke, A. Ganoczy, F. L. Battles, W. Bouwsma, B. Armstrong, F. Higman, A. McGrath 등이 있다.

26. Herman Bauke, *Die Problems der Theologie Calvins*(1922).

27. Gamble, "Current Trends in Calvin Research, 1982-1990", p. 106; 이양호, p. 57; John Leith, 이용원 역, p. 21; Dowey, p. 243ff.



## 2) 칼뱅의 신학적 인식론

### (1) 이중 신지식론(duplex cognitio Dei)

칼뱅의 신학의 구성원리로 간주되는 이중 신지식론이란 기독교 강요의 서두에서 제시되는 “우리의 모든 지혜(1536년 초판에서는 ‘거룩한 교리’)의 총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진술에 근거한다. 이것은 신지식(knowledge of God)은 구속자와 창조주의 두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 자아(self)를 아는 지식과 뗄 수 없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이는 「기독교 강요」의 초판(1536)에서 최종판(1559)까지 변함없이 서두에서 제시되고 있는 칼뱅신학의 출발점이며 기본 전제이다.

칼뱅이 인식행위를 심리학이나 형이상학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중 지식론’을 칼뱅의 신학적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인식의 문제, 진정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예민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종교개혁을 신앙에 대한 무지와 오류를 올바른 ‘지식’으로 대치함으로써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로 간주한 데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칼뱅 자신만의 문제의식은 아니었다.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진행되고 있던 정신적 변화의 흐름에서 인식론적 전환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신지식론은 「강요」의 서두에 그의 신학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었고, 본격적으로는 강요의 3권 제1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에서 비로소 충분히 전개되었다. 사실상 「강요」의 제1권의 첫 9개 장은 그의 신학 작업을 전개하기 위한 인식론적 서론이며, 제2권의 주요부도 기독교적인 지식을 구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지식의 개념으로써 신앙을 규명하고 바른 신학을 세우려는 그의 접근방법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은 그의 모든 신학적 사고가 그러하듯이 철저히 성서에 근거한 것이고 동시에 그의

시대에 진행되고 있었던 르네상스의 정신적 변화에 깊이 뿌리박은 것이었다.

### (2) 칼뱅의 인식론의 배경

① 성서의 지식개념 : 신앙을 일종의 지식으로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칼뱅의 관점은 신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성서의 주요한 전승과 일치하는 것이다.<sup>28)</sup> 물론 성서가 신앙을 지식으로서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신에 대한 사랑’이나 순종의 실천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 역시 성서의 본질적인 맥락이다. 칼뱅이 신앙을 지식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 이유는,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킨 중세 말의 종교상황의 핵심이 윤리적 부패의 근저에 있는 교리의 왜곡이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신앙을 신인식의 관점에서 지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서 속에서 충분히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당시의 신학자들이나 신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신학의 인식론적 근거로 삼고, 자신의 신학의 구성원리로까지 발전시킨 것은 칼뱅의 독특한 신학사적 기여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러한 신학적 전진을 가능케 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② 르네상스의 인식론 : 칼뱅의 시대는 “르네상스의 인식론적 위기”라고 부를 만큼 중세의 이성지배의 인식론과 지식관을 탈피하여 새로운 인식의 근거를 모색하는 전환기였다. 전통적인 인식론은 인간의 정신이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as it really is)—마치 신(神)이 아는 것과 같이—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낙관주의는 인식의 행위에서 정신은 인식되는 대상과 연합되어 동일시된다는 개념

28. 전도서 5:1; 잠언 1:7; 신명기 4:6; 호세아 6:3; 요한복음 17:3, 20:31.

으로 표현되었고 언어는 적절히 사용되기만 한다면 사물을 취급하기에 충분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태평스런 가정이었다.<sup>29)</sup>

이러한 전통적 인식론은 14세기부터 침식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징후는 말과 사물의 밀접한 관계성이 의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문주의자들은 언어가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많은 기능들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의사소통 행위는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 즉 설득이나 아마 심지어 속임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up>30)</sup> 그리고 스콜라신학에 의해 대표되는 철학적 논의라고 하는 것은 잘해야 무용한 것이며, 가장 나쁜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수상한 것이며,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을 오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추세로 말미암은 신학적 변화는 신학을 과학으로 수립하려는 노력이 중단되었고, 지식의 타당성이란 어느 체계에 일치하는 것으로 얻어진다는 관념이 포기되었다는 것이다.<sup>31)</sup>

### 3) 칼뱅의 수사학적 신학

칼뱅은 지난 5세기 동안 신앙의 위인, 지적인 천재, 도덕적 훈육가, 종교 혁명가, 절제 있는 교리의 중재자 등 다양한 이미지로서 이해되어 왔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칼뱅에게서 문학적 장인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된다. 「기독교 강요」는 1536년 초판 간행 이래 1559년까지 긴 세월 동안 5차례나 수정·증보하였고, 자신이 직접 라틴어에서 모국어인 불어로 번역하였으며, 신학적 구조와 언어적 표현을 다듬고 정제하고 도의 수사학적 텍스트이다.<sup>32)</sup>

칼뱅의 설교와 신학적 저술이 당시의 상황에서 지식계층에 열렬한 호소력을 갖고 받아들여진 주된 요인을 우리는 그의 신학함(doing theology)의 정신과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신학함이란 경건과 학문의 조화로운 종합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업이다. 칼뱅의 신학 속에는 그 자신의 독특한 ‘하나님의 엄위’(majesty) 체험과 함께 학문적으로 그 시대의 수사학 정신이 깊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

#### (1) 칼뱅신학과 수사학적 정신

① 칼뱅 시대의 수사학 : 칼뱅이 태어나고 성장한 프랑크 르네상스의 문화 속에서 수사학은 인문주의 학문의 총아로서 각광받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을 선두로 하여 새로운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수사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사학자들은 교사로서만 아니라 정치적 문사로서 국가와 교회의 많은 분야에 진출하고 있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받아들인 수사학은 “지식에 힘을 불어넣으며, 진리가 인간의 삶과 관련을 맺도록 하는 학(discipline)”이었다. 스콜라주의 학문의 이념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였다면 르네상스의 수사학 정신은 지혜와 수사 또는 설득술의 결합이었다. 통상 수사학은 철학이 논리적 필연성을 추구함에 비하여 개연성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자의적인 임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변화를 본질로 하는 현실 속에서 보편논리의 형식과 명분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상황 속에서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사학적 정신은 진리란 정식화(定式化)된 상태로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한 사고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관념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 같은 르네상스 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칼뱅의 신학작업은 확정된 교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시대정신과 대화하며 종교

29. Aristotle, *De anima*, II. 7, 431 quoted in Bouwsma, "Crisis", pp. 190-191.

30. *Ibid.*, p. 151.

31. *Ibid.*, pp. 151-151.

32. Serene Jones는 *Rhetoric of Piety*(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에

서 「기독교 강요」의 1권 1~3장을 수사학적 읽기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혁의 교의를 동시대인들에게 호소력 있는 신학적 언어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② 수사학적 신학의 특징(목적성과 상황성) : 칼뱅의 신학형성에 영향을 미친 수사학의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수사학의 목표이며 핵심개념인 '설득'(persuasio)에 관한 것이다. 칼뱅에게서 수사학의 역할은 그가 생각하는 신학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신학이 '설득'(persuasio)이라는 '수사학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신이 착수하고 있는 신학적 작업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신학자의 과업은 잡다한 이야기로 청중의 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양심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sup>33)</sup>

칼뱅이 생각하는 유익한 또는 유용한 가르침이란 실제적인 경건의 내용을 담지 못한 추상적이고 무용한 호기심에 이끌리는 사변(speculation)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거듭하여 당시의 스콜라 학자들의 사변신학이 갖는 폐단을 비판한다. 그 이유는 사변신학이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들의 신앙이나 덕성 면에서 어떠한 선한 효과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사학적 신학의 두 번째 특징은 상황성이다. 수사학이 신학에 결부되어야 할 이유는 신학 자체가 무시간적인 진리진술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필요와 과제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띠어야 하기 때문이다.<sup>34)</sup> 칼뱅은

33. 「강요」 1.14.4.

34. 이 점에서는 신학의 정의를 “복음을 주변문화에 적용시키는 작업”이라고 한 John Yoder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John Yoder, “Thinking Theologically

자신의 신학이 모든 시대를 위한 진리를 서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의문과 논쟁에 대한 답변이 되기를 원하였다.<sup>35)</sup> 이 점에 관하여 우리가 상기할 사실은 「강요」가 집필되고 제네바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의 유럽의 상황은 명실상부한 ‘수사학적 전투’의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그의 글은 개신교 종교개혁에 적대적인 공격에 대한 응답이었고, 회중들의 공감과 지지, 원근의 다양한 세력들의 협조를 얻어 내야만 하는 긴박한 과제들 속에서 쓰인 글이었다.

이러한 신학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예정에 대한 칼뱅의 인식이다.<sup>36)</sup> 그는 이성적인 이해를 넘는 예정교리를 다룰 때, 이 교리가 신자의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핵심의미로 삼는다.

이것은 실제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으로 거반 죽을 정도로 의식이 마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크나큰 안도를 준다.<sup>37)</sup>

일반적으로 칼뱅은 설교에서 진리를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보다 설교가 청중에게 미치는 효과, 즉 신자들의 행위 면에서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 이것은 수사학자의 태도였다.

## (2) 언어와 문체

칼뱅을 한 사람의 인문주의 수사학자로 이해하면서 접근하고자 할 때 먼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의 언어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다. 인문주의 운동은 말과 텍스트로 표현되는 언어가 인간의 경험과 기대를 전

from a Free Church Perspective”, in *Doing Theology in Today's World*, ed., J. Woodbridge and T. E. McComiskey (Zondervan, 1991), p. 251.

35. Jones, p. 38.

36. *Ibid.*

37. 「강요」 3.21.1.

달하고 변혁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일으켰다. 단적으로, 인문주의자들에게 언어는 힘이였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인문주의는 성서로 돌아감으로써 기독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는 운동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처럼 설득적 언어의 힘으로 세상을 개혁하려는 인문주의자들의 의도가 종교적 영역에 적용되었을 때, 수사학적 정신과 성서연구 및 신학적 담론이 결부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칼뱅의 언어에 대한 견해는 세네카 주석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칼뱅은 통상적인 인문주의자들과 같이 언어를 관습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는 기록하기를,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부터 구별해 주는 것은 어원이나 본질적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의 용법이다.”<sup>38)</sup> “언어는 인간 사회를 묶어 주는 접착제”라는 인문주의자들의 상투어를 반복하곤 했다.<sup>39)</sup>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에 두시고 “상호간에 의사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를 주셨다.”고 칼뱅은 말한다.<sup>40)</sup> 이러한 칼뱅의 언어관이 성서해석에 나타난 현저한 예는 로고스(logos)에 대한 해석이다. 칼뱅은 요한복음 서두의 “태초에 말씀(logos)이 계시니라”에서 그리스어 ‘로고스’를 불가타(Vulgate) 역본이 ‘verbum’으로 번역한 것과 달리, 로렌조 발라나 에라스무스와 견해를 같이하여 ‘sermo’(speech)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철학적 전통이 로고스를 ‘이성’(ratio)과 ‘진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면, 수사학 전통은 ‘언어’와 ‘용변’(oratio)의 개념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그는 ‘말’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정신의 심상(image)으로 발설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신다고 하는 것은 부적합한 일은 아니다.”<sup>41)</sup>라고 하였다. 수사학적 의

사소통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시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칼뱅은 반복하여 주장한 것이었다.

① 칼뱅의 문체 : 칼뱅의 신학저술은 대중적인 문체에 익숙한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그다지 쉬운 글이라고 할 수 없지만 16세기 작가들의 글들 중 가장 읽기 쉬운 글이라고 평가되기도 하며,<sup>42)</sup> 실제로 당시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교양계급에게는 대단한 호소력을 발휘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근대 프랑스 산문의 창시자로 인정되기도 하는 칼뱅은 자신의 중요한 저서들을 학식 있는 독자세계를 위해서는 라틴어로, 동포들을 위하여 프랑스어로 저술하였다.

그의 문체상의 특징은 지성주의가 감정과 경험의 차원을 수반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교리가 차가워서는 안 된다. 또한 뜨거워서도 안 된다.”고 하였으며, 사람들이 실생활과 관계없을 만큼 너무나 “고상하고 심오하다.”고 평가하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광증’(folie)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그의 문체 속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가 매우 자주 사용한 단어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들이란 다른 어떤 저자들도 그 문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칼뱅의 고유한 용어들을 의미한다. 그것은 ‘교리’(doctrine)와 ‘마음’(coeur)이라는 단어이다. ‘교리’(doctrine)라는 단어는 그의 저술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발견된다. 칼뱅에게서 교리라는 단어는 단지 교의적 조항만이 아니라 가르침, 권고, 충고, 규칙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음’(coeur)이라는 단어는 칼뱅의 저술에서 더욱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어떤 종교개혁자도 이처럼 이 단어를 자주 쓰지는 않았다. 이 말은 칼뱅의 신학의 중심원리인 신지식론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을 함축한다.

38. 세네카 주석 91.

39. 에페미야 주석 5 : 15.

40. 욕기 설교 56, 705.

41. 요한복음 주석 1 : 1, quoted in Bouwsma, *John Calvin*, p. 287.

42. W. S.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in Geneva”, *Westminster Journal of Theology* 18, p. 111.

이 지식은 공허한 추측이나 머리 속을 맴도는 사변(思辨)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박으며 견실해지는 지식이다. 이는 객관적이지만 주관, 즉 사고의 주체를 견실케 하는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지식은 산 체험에서 얻어진다.<sup>43)</sup>

칼뱅에게 신학자의 과업의 본질은 구원에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며 경건의 성향(disposition)을 심어 줄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heart)에 뿌리박은 것이며 이해가 아니라 확신이라고 강조하였다.<sup>44)</sup>

② 성경해석과 문체(간결과 용이함의 수사학) : 칼뱅은 '간결과 용이함'(brevitas et facilitas)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신학적 문체를 창출하였다. 특히 이것은 칼뱅의 성경주석서의 특징으로 지적되어 온 개념으로서 그의 신학 저술의 문체와 성경해석 방법의 특징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말이다. 간결(brevitas)의 의미는 영어의 'brevity' 혹은 'conciseness'에 해당한다. 이는 해석자가 자기의 서술이나 설명, 논쟁에 있어서 간결한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성서주석에서 독자들을 지루하게 하는 장황한 주석을 반대하는 것이다. 용이함(facilitas)이란 영어의 facility 혹은 fluency of expression으로 번역되는데 문장의 부드러움이라기보다는 그 논지가 단순히 혹은 쉽게 이해됨을 의미한다.<sup>45)</sup> 용이한 방법이란 다른 주석가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본문의 의미를 향하여 직접 가는 것을 의미한다.<sup>46)</sup>

43. 강요 1.1.1.

44. 강요 3.2.15.

45. T. H. Parker,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Edinburgh, T&T. Clark, 1971), p. 51.

46. Jack Rogers,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n *Major Themes in the Reformed Tradition*, ed. Donald McKim, (Eerdmans,

칼뱅의 간결성은 동시대의 다른 주석가들의 다변과 장황성(verbosity and prolixity)을 거절할 뿐 아니라 해석의 명료성이 근본적으로 성경의 명료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한다.<sup>47)</sup> 칼뱅은 「로마서 주석」의 헌사에서 이 원리를 처음 언급하고 「기독교 강요」, 설교, 그리고 서신들에서도 거듭 이 원리를 언급한다.

본래 나는 간결성을 사랑한다. 아마도 내가 말을 장황하게 했다면 나는 간결성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긴 표현의 가르침이 높게 받아들였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의 저서의 계획은 우리가 가능한 한 간결하게 교리의 단순한 개요를 밝히도록 요구한다.<sup>48)</sup>

칼뱅의 문장의 간결성은 동시대의 다른 신학자들과 확연히 비교되는 것이었다. 칼뱅의 창세기 주석은 루터가 8권이던 부처(Bucer)가 4권이었던 데 비하여 단 한 권으로 되어 있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장황성을 비평한다. "헛된 사상을 길게 변론하는 데 애쓰는 것에 대해 에라스무스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sup>49)</sup>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를 포함하여 고대의 교부들도 장황한 해석을 많이 했다고 지적한다. 파렐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는 "내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의 장황성은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문체는 아주 간단합니다."<sup>50)</sup> 용이함(facilitas)의 개념은 주로 키텔리아누스가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는 수사학의 초보자들에게 키케로를 탐구하도록 권했고, 무엇보다도 글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용이하게

1992), p. 56.

47. McKim, "Calvin's View of Scripture", *Readings in Calvin's Theology*(Baker, 1984), p. 66.

48. 「강요」 3.6.1.

49. 「로마서 주석」 5:14.

50. 안명준, p. 66, n. 21.

이해하도록 쓰라고 가르쳤다. 특히 종교적인 언어에서 명료한 표현을 강조하였다. 간결함과 용이함의 방법론은 초기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을 통하여 르네상스 시대까지 전달되고 발전되었다.<sup>51)</sup> 칼뱅은 직선적인 단문의 고안자로서 평가되는데, 이는 프랑스어의 글쓰기의 방법만이 아니라 논쟁의 무기와 분석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16세기의 프랑스어 문법에서는 문장(sentence)의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 않았으며, 한 문장이 10여 개까지도 주제를 담고 있는 복문이 보편적으로 쓰이던 시대였다.

칼뱅의 문장 기술은 개혁자의 메시지가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는 종교개혁의 수사학적 전투의 상황의 요구에 의하여 채택되고 고안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인문주의의 수사학이 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칼뱅의 수사학적 신학이 갖는 의의는 그의 신학함의 자세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칼뱅의 신학이 수사학적 차원을 수용한 목적은 독자의 마음(coeur)에 경건의 성향을 형성(disposition forming)하고, 덕을 함양(virtue shaping)하며, 선을 행하려는 소망을 심는 것이었다. 칼뱅의 저술담론은 이러한 '마음의 운동'(play of mind)을 독자들에게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칼뱅의 문체에 대한 분석은 신학의 내적 특성이 수사학적 접근에 의하여 조명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주요한 예이며, 또한 명제적인 진리 진술이 미학과 사회적 실천 등과 결합하는 방식을 통찰하는 시각을 얻게 해 준다.

#### 4. 결 어

칼뱅의 신학작업(doing theology)에서 인문주의가 수용되고 활용된

것은 신학적 인식론, 문헌학적 방법론, 수사학적 언어의 3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ledge of God)으로서 정의하며 접근하는 칼뱅의 '이중 지식론'(duplex cognitio Dei)은 종교에서조차 이성의 객관적인 인식능력을 전제한 중세적인 신학방법을 탈피한 것으로서 신학의 출발점을 "신 또는 신성(God or God's nature)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보다 "우리는 신 또는 신성(God or God's nature)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두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궤를 같이하는 방법인 동시에 성서에서 발견되는 지식 개념과 조화되는 것이었다. 칼뱅의 성서해석은 역사문법적인 성서해석의 효시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문헌학적 훈련에 의하여 가능케 된 것으로서 성서해석의 누적된 오류들을 제거하고 성서의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 수사학의 학문정신과 언어적 수련은 성서와 신학의 목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성서의 메시지를 이해할 뿐 아니라 경건의 실천에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신학의 목적과 수사학은 조화롭게 일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과 수사학의 결합은 이미 고대 교회 이래로 기독교회의 전통이었으며, 칼뱅의 수사학은 이 전통 위에서 있는 것이었다.

한편, 칼뱅의 신학과 인문주의의 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통상적인 기독교 인문주의자들과의 차이점이다. 그는 에라스무스로 대표되는 당시의 기독교 인문주의자들과 많은 면에서 정신적 공감대를 갖고 있었으나 그들이 중세 말의 왜곡된 기독교를 도덕과 내면의 영성을 중심으로 갱신하면서 교의적 요소를 무시하려 한 것과 달리 '하나님 주권사상'(God's sovereignty)과 '예정론', '죄론'과 '인간의 전적 부패' 등 성서에 메시지에 근거한 교의적 신학작업을 결코 경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칼뱅은 종교개혁의 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견지한 인문주의자였다는 점에서 신학적 인문주의의 가능성을 예시한다고 하겠다.

51. 안명준, 「칼빈의 성경해석학」(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p. 61-62.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의 상관성의 문제는 신학이 시대정신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신학이 타 학문의 인식론과 방법론을 수용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하여 귀중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종교와 문화의 상호관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전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